

2025년 11월 2일 주일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에 교회는 죽은 모든 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연옥의 영혼들을 위하여 정성껏 기도하며 그들이 하루빨리 정화되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간구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두 예외 없이 맞이할 죽음을 생각하며 더욱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아가도록 결심해야겠습니다.

입당성가 : 227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본기도

+ 기도합시다

주님

성자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저희의 믿음을 깊게 하셨으니

저희의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시고

저희도 세상을 떠난 주님의 종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리라는 굳건한 희망을 지니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제 1 독서 : 욥기의 말씀입니다. 19,1.23-27

화답송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5,5-11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과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1-12

강 론

예물준비성가 : 517번 '내가 절망 속에'

영성체 성가 : 436번 '주 날개 밑'

영성체 후 묵상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자신도 분명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위령의 날에 우리는, 이러한 운명이 주님 안에서 죽음조차 소멸시킬 수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변모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희망합니다. 영생에 대한 희망으로 우리보다 먼저 떠난 이들도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희망은 지금 우리의 삶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죽음을 외면하거나 허무감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충실히 걸으면 죽음도 앗아 가지 못하는 구원을 예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27번 '이 세상 덧없이'

2025년 11월 9일 주일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평신도 주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교회는 평신도 주일을 보내며,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 미사를 성대하게 거행합니다. 베드로 대성전이 건립되기 이전에 로마의 주교인 교황이 거주 하였던 라테라노 대성전은 ‘모든 성당의 어머니요 으뜸’이라는 영예로운 호칭을 얻었습니다. 오늘 축일의 의미는 전 세계의 가톨릭 교회가 하나로 일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일치의 원천은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미사에 참여합시다.

입당성가 : 67번 ‘성전 오른편에서’

본기도

+ 기도합시다

하느님,

몸소 뽑으신 살아 있는 돌로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셨으니
하느님의 교회에 은총의 영을 더욱 풍성히 내려 주시어
저희가 천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47,1-2.8-9.12

화답송 : ◎ 강물이 줄기줄기 하느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하네.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3,9-11.16-17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 집을 선택하여 성별하고 이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3-22

강 론

예물준비성가 : 210번 '나의 생명 드리니'

영성체 성가 : 166번 '생명의 양식'

영성체 후 묵상

바오로 사도는 분열과 시기의 흥역을 치른 코린토 교회의 신자들에게 교회의 봉사자들이 어떤 마음을 지녀야 하는지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교회를 잘 설계하는 지혜로운 건축가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하였으며, 어떤 이는 실제로 그 집을 짓는 사람의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르지만 모두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 줍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69번 '지극히 거룩한 성전'

2025년 11월 16일 주일
연중 제33주일(세계 가난한 이의 날)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33주일이며 세계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만물의 시작이시고 마침이신 하느님께서서는, 아드님의 살아 있는 성전에 온 인류를 모으십니다. 변하는 이 세상의 기쁨과 슬픔을 넘어 하느님 나라에 희망을 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 굳게 믿으며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아갑시다.

입당성가 : 48번 '주 우리에게 사랑과 자유를'

본기도

+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언제나 모든 선의 근원이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말라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3,19-20

화답송

◎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2서 말씀입니다. 3,7-12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21,5-19

강 론 :

예물준비성가 : 41번 ‘형제에게 베푸는 것’

영성체 성가 : 46번 ‘사랑의 송가’

영성체 후 묵상

그날이 오면 거만한 자들과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검불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의로움의 태양이 날개에 치유를 싣고 떠오를 것입니다.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인내로써 생명을 얻읍시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31번 ‘이 크신 모든 은혜’

2025년 11월 23일 주일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성서 주간)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마지막 주일로,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절대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만물을 화해시켜 우리가 하늘 나라에서 당신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입당성가 :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본기도

+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사랑하시는 성자를 온 누리의 임금으로 세우시어 만물을 새롭게 하셨으니

모든 피조물이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섬기며

끝없이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사무엘기 하권의 말씀입니다. 5,1-3

화답송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1,12-20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23,35ㄴ-43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212번 ‘너그러이 받으소서 ’

영성체 성가 : 498번 ‘예수여 기리리다’

영성체 후 묵상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 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 아드님 안에서 우리는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신 주님께 청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2025년 11월 30일 주일 대림 제 1주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림 제1주일입니다. 전례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교회는 마지막 때에 대하여 묵상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세상이 끝나면 그것으로 우리 모두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에게서 구원을 얻습니다. 대림 시기를 시작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늘 깨어 있도록 합시다.

입당성가 : 96번 '하느님 약속하신 분'

본기도

+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며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늘 나라에 들어가 그리스도 곁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2,1-5

화답송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13,11-14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4,37-44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512번 ‘주여 우리는 지금’

영성체 성가 : 180번 ‘주님의 작은 그릇’

영성체 후 묵상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멸망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입니다. 세상의 생명이 다하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자 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 모신 성체는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참되게 만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양식입니다. 성체야말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의 표징입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91번 ‘구세주 빨리오사’